

“출산장려·반값 생활비...지역 살릴 아이디어 찾습니다”

호남 지자체, 정책 발굴에 시민 아이디어 반영 활발

교통 등 생활 속 의견 수렴...수상자에 상금 지급도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발굴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제안한 정책을 뜻대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 정책이 대표적이다. 웬만한 시책에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인구 대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수 자

치단체가 시민 뜻을 찾겠다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인구 늘릴 방법 좀 알려주세요=전주시는 인구를 늘릴 방법을 시민들에게 물었다. 이른바 ‘전주형 저출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제안’을 받는다. 다음 달 13일까지 총 31일간 공모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공모 주제는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혼인장려 방안) ▲임신·출산 장려 정책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사회 구현 ▲양육 및 보육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전주시는 우수작 3개를 뽑아 시상한다.

여주시도 이달 말까지 ‘인구늘리기 방안’을 주제로 창의적 제안을 공모한다. 여주시 인구를 늘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다. 같은 방법에도 2008년 이후 감소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인구 감소 대책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어려움이 엮인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극복 ▲출산·육아 ▲청소년 인구유출 방지 ▲중장년층 은퇴세대 인구유입 방안 ▲전입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다.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다’며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게 여주시 방침으로, 6개 항목(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계속성)을 따져 수상자를 선정, 100만~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공여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주시 인구는 지난 2008년(29만5133명) 이후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0년(29만3488)→ 2012년(29만2217명)→ 2014년(29만900명)→2015년(29만168명) 등 감소하더니 지난해 말(28만8988명)에는 28만명대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4월(28만7969명)→5월(28만7840명)→6월(28만7607명)→7월(28만7479명) 등으로 한 차례도 늘지 않았다.

인구 증가를 위해 온갖 시도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지막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물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안도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를 오는 16일부터 공모하고 고창도 이달 말까지 ‘특색’ 군민아이디어를 찾는 다’며 인구절벽 해소 대책을 찾고 있다.

◇청년 정책에 생활비 줄일 아이디어까지=일자리·청년·도시재생·생활비 줄일 공유경제 아이디어도 공모로 찾는다.

전주시는 다음달 6일까지 교통·통신·먹거리·의료 등을 공유,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껴 쓰는 사례를 찾는다. 생활비 줄이려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수렴,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상이다. 나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청년층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를 청년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으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도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청년희망단’을 공개 모집했다.

나주시는 앞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아이디어 등을 찾았다며 ‘2017 빛가람 미래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남은 일자리 늘리기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창=박형진기자 phi@kwangju.co.kr



완도 노화도~소안면 구도 연도교 완공 ‘임시 개통’

길이 780m 국비 570억 투입 6년만에...교류 활성화 기대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면 구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완공돼 임시 개통됐다.

연도교는 2007년 제3차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에 반영돼 2011년 착공, 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모두 57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와 군비 15%씩 투입됐다.

교량 길이 780m, 접속도로 840m 규모로 완도군이 발주하고 3개 사가 공동으로 급해 시공했다.

완도 12개 읍·면 중 노화, 소안, 보길 등 3곳은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노화~보길 연도교 개통에 이어 연도교가 또 완공되면서 3개 읍·면의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안면 구도에서는 노화읍과 왕래가 쉬워져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완도군은 전했다. 완도군은 구도와 소안도 간 연도교 공사도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타당성 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전주 ‘시민 참여 에너지 독립운동’

SNS에 33인 발기인 선언...절약 미션 수행 후 결과물 공유

전주가 ‘에너지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제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서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전주시는 기후변화의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참여 전주 에너지 독립운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에너지독립운동은 광복절인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운동은 에너지독립선언과 에너지 독립운동, 에너지광복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춰 추

진한다는 게 전주시 구상이다.

에너지독립선언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이 모여 추진한다. 33인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을 한 점에 착안, 15일 오전 11시부터 에너지 독립 33인 발기인의 온라인 독립선언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뤄지고 릴레이식으로 추천을 받은 시민들의 독립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프라인으로도 에너지 독립운동을 모집하고, 독립선언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에너지독립운동으로, 독립선언을 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블로그 등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전주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고, 실천하도록 유도기로 했다.

마지막 단계인 에너지광복은 에너지 절약 활동을 넘어 에너지 생산을 통한 진정한 에너지 자립에 있다고 보고 에너지 생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기회 등을 공유하면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전주에너지독립운동을 계기로 에너지자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채석강·모항 해수욕장서 지질 공부

위도 등 6곳 탐방 프로 인기

부안지역 지질명소에 대한 탐방·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 교사들은 최근 적벽강, 채석강, 모항해수욕장 일대에서 지질 탐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안지질명소 중 죽마해안의 경우 중생대 백악기 호수 환경의 퇴적물과 호수로 흘러들어난 유문암질 용암이 만나 만들어진 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부안 지질명소인 적벽강·채석강 등을 둘러봤다.

부안지역에는 적벽강·채석강·솔섬·모항·직소폭포·위도 등 6곳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질 명소로 꼽힌다.

한편, 부안군은 고창군과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부안=김민준기자 jun@

“목포로 갈치 낚시 오세요”

올해도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낚시 어선 55척에 대해 해당 구역에서의 어업을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일부터 영업을 허가했으며 시는 허가 조건에 동의한 55척의 신고를 수리했다.

이 일대에서는 어업인 소득증대,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2015년부터 3년째 갈치 낚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39척에 허용돼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만3000여명이 갈치낚시를 즐겼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백양사 인근 성암리 전 2803㎡ 분할가능 1억4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물도 좋은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양불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완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전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오피스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완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역 367㎡ 건물신축적합 4억9천
- 고흥 통일면 6891㎡ 펜션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재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여㎡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중을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광산군 선암동 호남대부근 대로변 대지 822㎡ 건평 344㎡ 18억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임대중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신 22556㎡ 대물담보용 최저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싼! 전답 입야

바로 삽니다!

(주) 오천개발
010-3605-5000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h3>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